

# 내일부터 사전투표...민주·민생 투표를 높이기 총력전

## 총선 D-6

4·15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는 10일과 11일 실시되는 사전 투표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각 후보 캠프가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이번 총선 투표율이 과거에 비해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지지층의 사전 투표 참여가 승부를 가를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광주·전남의 일부 집권 지역에서는 사전 투표 결과에 따라 당락이 갈릴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8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각 후보 진영에서는 지지층의 사전 투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모든 조직을 총동원하고 있다.

우선 민주당 후보 진영에서는 사전 투표를 통해 승기를 균한다 방침이다. 사전 투표율이 높을 수록 총선 투표율도 동반 상승, 고공 행진하고 있는 민주당 지지율을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후보들은 당 조직 등을 토대로 유권자들의 사전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광주지역 민주당 모 후보 측에서는 “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하고 있어 사전 투표율이 높을수록 우리에게 유리한 측면이 크다”며 “지역 유권자들에게 사전투표 참여

## 광주·전남 집권지 당락 변수

### 전화, SNS 등 동원 참여 독려 10%대 이하나 이상이나 촉각

를 적극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생당 및 무소속 후보 진영에서는 민주당 바람속에서도 그동안 다져온 조직을 총가동하면서 사전 투표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지역구에 따라 적게는 7000명, 많게는 1만명 정도의 사전 투표 참여 목표를 설정하고 전화, SNS 등을 통해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또 군소정당 후보들도 바닥을 누비며 형성한 지지자들이 사전 투표에 나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후보들과 치열한 경쟁전을 펼치고 있는 민생당 및 무소속 후보 진영에서는 사전 투표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전 투표율이 한 자리 숫자에 머문다면 전체 투표율도 50% 이하로 떨어질 수 있어 충성심이 높은 조직표를 토대로 승리의 드라마를 쓸 수 있다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특히, 투표율 하락은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물지마 지지’의 최소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민주당 바람에 야당 후보를 지지하는 ‘숨은 표’가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전남의 민생당 후보 측 관계자는 “현재 여론조사 상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앞서나가고 있지만 이는 바람에 의한 착시현상”이라며 “이번 총선은 코로나 19 사태로 투표율이 50%대 이하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조직력과 숨은 표를 토대로 우리 후보가 역전 승리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에서는 사전투표율이나 총선 투표율이 과거보다 낮아진다고 해서 전체 흐름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지지율이 60%대,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70%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표율이 조금 낮아진다고 해서 대세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정치 의식이 높은 광주·전남 투표율이 전국 평균을 상회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19 사태 속에서도 각종 여론조사 결과, 21대 총선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유권자 비율은 70%대를 넘나들고 있어 이번 총선 투표율이 낮아질 가능성도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한편, 지난 20대 총선에서의 광주의 사전투표율은 15.8%, 전남은 18.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또 광주의 총선 투표율은 18대 42.4%, 19대 52.7%, 20대 61.6%였으며 전남은 18대 50%, 19대 56.7%, 20대 63.7%로 각각 집계됐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찾아가지 않는 선거공보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을 일주일 앞둔 8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아파트 단지 우편함에 아직 찾아가지 않은 선거공보물이 꽂여져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5·18왜곡처벌법 제정하고 방사광가속기 빔가람혁신도시 유치”

### 광주 찾은 민주-시민당

### 광주·전남 공동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8일 광주에서 합동 선거대책위원회를 열고, 정책공약 협약을 진행하는 등 공동 행보를 이어갔다.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이해찬 상임선대위원장, 조정식 정책기획본부장, 김경협 총무본부장 등 지도부와 송갑석 광주상임선대위원장, 서삼석 전남상임선대위원장, 이개호·신정훈 공동선대위원장, 광주에 출마한 윤영덕(동

남갑), 이병훈(동남을), 양항자(서구을), 조오섭(북구갑), 이용빈(광산갑) 후보가 참석했다.

더불어시민당은 우희종, 이종걸 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김홍걸 공동선대위원장, 정은혜 사무총장, 봉정현 대변인 등 지도부와 최희용, 김경만, 김상민 비례대표 후보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양 당은 광주·전남 공동 정책공약 ‘더불어와 더불어의 약속’을 발표했다. 양당이 협약한 ‘동북아 미래산업 선도를 위한 광주·전남 공동정책 공약’에는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과 5·18역사왜곡처벌특별법 제정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 ▲인공 지능 및 자동차, 문화, 에너지산업의 획기적 발전 ▲4세대 원형방사광가속기의 빔가람혁신도시 유치 ▲지역특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와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2020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민주당 이해찬 상임선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함께하며 사전투표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며 “사전투표와 본투표에서 지역구는 1번 민주당, 비례대표는 5번 시민당을 부탁드립니다”며 지지를 당부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문 대통령 “수출기업에 36조원 무역금융 공급”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거래 위축으로 타격이 극심한 수출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36조원 이상의 무역 금융을 추가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내수 진작을 위해 공공부문이 과감하게 선결제·선구매에 나서 수요를 창출하고, 개

인사업자 보호를 위한 세 부담 완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그동안 10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단행해 기업 지원에 나섰고,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에게 지급하는 초유의 결정도 했다. 하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이런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문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거래 위축으로 타격이 극심한 수출기업들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했다”며 “36조원 이상의 무역 금융을 추가 공급하고, 수출 보험과 보증을 만기 연장하여 30조 원을 지원한다. 수출 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도 1조 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시련 겪을때마다 위로 선사한 부활 메시지



김은영의 '그림 생각'

(308)예수

부활 주관을 앞두고도 했고, 때마침 접한 책이 도을 김용옥의 ‘나는 예수입니다’ 이기도 해서 어쩌다가 예수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됐다. 아직까지 성경 일독을 하지 못한 터라 이 관련을 읽는다고 해서 예수를 온전히 알 수는 없겠지만 말이다. “모든 종교와 예술, 철학은 과거를 뒤집고 딴 세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다분히 혁명적”이라고 하듯, 도을의 1인칭 ‘예수전’에서 만난 예수 역시 천국운동가이자 민중운동가로서의 ‘혁명적’인 모습이 다분했다.

율법주의자들의 억압으로부터 세상을 해방시키고자 했던 예수는 “교회도 종교

도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종교적 계율을 방지하여 인간의 복속을 강요하는 모든 독단은 사기꾼의 폭압에 불과함”을 강조한다. 그 어떤 신념이나 믿음에 앞서 보통 사람의 삶, 생존의 요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미인 것 같아 요즘 시기에 더더욱 와 닿는다.

사람의 아들로서 예수의 모습과 성모 마리아의 얼굴을 처음으로 화폭에 그린 이는 성경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저술한 예수의 제자 ‘성 누가’로 전해진다. 그런 까닭에 ‘성 누가’는 기독교회화의 아버지이자 화가의 수호성인이 되었고 서양미술에서는 많은 화가들이 성모자를 그리고 있는 성 누가의 모습을 자주 그렸다.

17세기 이탈리아 바로크 화가 구에르치노(1591~1666)의 ‘성모자를 그리는 성 누가’ (1652년 경)는 성 누가가 자신이 그린 그림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다. 커다란 이젤 위 성모자 그림에는 성모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오른손으로 가리키고 있는데 아기 예수의 왼



구에르치노 작 ‘성모자를 그리는...’

손에는 말씀을 상징하는 두루마리가 들려있고 오른손은 강복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감탄하면서 그림을 감상하고 있는 천사, 오른쪽 뒤 탁자 위에는 성 누가를 상징하는 황소와 복음사가를 의미하는 펜이 상징적으로 놓여있다. 성경으로 성모자를 그렸던 누가의 그림은 우리 인간이 시련을 겪을 때마다 위로와 희망을 선사했던 예수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광주시립미술관관학예관·미술사박사>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스틸방수시공모습

철재시공모습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의료광고심의필 제 191202-중-102256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척추, 관절 중점 치료

한결같은 마음으로 “곧은 척추, 굳건한 관절”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